

「건축사」지를 통해 본 건축사의 정체성과 윤리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by Chang, Yang-soon

I 들어가는 글

이 달로서 창간 500호를 맞는 「건축사」지는 1965년 9월 25일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설협회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그 고고의 성(聲)을 세상에 외친 후 10개월 만인 1966년 7월에 창간호를 냄으로써 그 역사를 시작하였다. 금번 '건축사지편찬위원회'에서는 500호 특집을 기획하면서 그간 발간된 「건축사」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필자에게 주어진 것은 “건축사의 지위와 윤리”에 관한 글들을 정리해 달라는 청탁이었다.

집필에 앞서 필자는 「건축사」지에서 이와 관련된 제목들을 취합한 712편의 목록을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전달 받았고, 이들 본문을 보기 위하여 「건축사」지를 섭렵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40여 편을 추가, 750여 편을 정독하였다. 이 결과 윤리와 정체성(지위)에 관한 것은 120여 편으로 약 16%를 점하였다.

나머지 84%는

첫째, 건축법을 위시한 관계법령(건축사 보수대가 포함)에 관한 것

둘째, 사건, 사고, 작품 등 현안(핫 이슈)에 대한 문제

셋째, 건축사 및 협회의 비전에 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집필자들은 대부분 건축사들이며 15%가량은 대학건축과 교수를 비롯한 건축전문지 편집인과 비전문자인 일반인도 소수 포함되어 있다. 글 쓸 때는 개업 건축사였으나 현재는 교수로 있는 분들이 있어 정확히 분류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고정칼럼과 기고 등은 분류하지 않았다. 이는 고정칼럼이 비교적 근년에 생겼고, 내용 또한 기고와 별 차이가 없으므로 분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원과 비회원 또는 건축사와 비 건축사에 관한 것 등 어떠한 것에 대하여도 분류, 비교, 평가하지 않았다.

건축사나 건축사협회나 법률과 정관 그리고 전문자격자로서 정체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변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고 느끼고 평가하고 평가받는 데서는 괴리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위도 오르내리기를 하게 된다. 즉 윤리에 따라 지위가 달라지고 따라서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사 개개인만이 아닌 건축사협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건축사와 건축사협회의 정체성과 윤리를 함께 다루었다.

본고는 먼저 건축사의 윤리와 정체성을 다루고, 뒤에 협회의 윤리와 정체성을 다루었다. 가능한 한 게재된 순서를 지키고 동류항으로 묶어 소제목을 뒀으므로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짐작하게 하였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과거를 직시할 수 있으며, 오늘 우리가 처한 위치를 가늠할 수 있고 또한 이로서 내일의 좌표를 세우는데 명경(明鏡)이 될 것이다.

글쓴이 다음의 괄호 안 숫자는 발표 연도를 나타내며, 연도가 같은 글이 계속될 경우, 첫 번 글에만 연도 수를 기재하였다. 경어는 지면상 평어체로 교체 하였고, 지면의 제약으로 문장도 축약하여 핵심만 볼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 그러나 연도를 기록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사」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전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글쓴이, 연도, 제목이나 주요 사항의 일부는 굵게 표시했으며, 필자의 견해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건축사는 성명만 쓰고, 그 외 인사는 직명을 병기하였다.

II 건축사의 윤리와 정체성

건축사의 윤리문제는 다른 건축사의 작품을 자기명으로 바꾸는 사례, 텀핑, 명의대여, 경쟁입찰의 참여, 현상경기의 로비, 계획설계 무료 제공, 부실설계 및 무책임한 감리행태, 무사안일, 정치에 대한 예측, 외국건축사의 작품 베끼기 및 외국건축사의 무

분별한 도입, 범망 피해가기, 도덕성, 허위보고 등이 거론되었고 이를 정화하고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사고의 전환, 전문가 의식의 재정립, 자기만의 건축철학 확립, 교육, 공공성의 제고, 봉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사의 윤리와 철학

1966년 정인국교수는 한국건축계의 당면문제란 글 중에서 건축사 윤리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명의를 임의로 뒤바꾸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건축주, 건축사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한 권위 있는 잡지에 아이디어와 도면제작자를 설계자로 발표했으나, 다른 계간지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한 소관기업체가 당당히 명

건축의 기본요소를 이해하고 있는가, 건축의 사회성을 알아 거기에 배타되지 않게 행동을 가하는 정도에서 우리건축계에 해당시킬 수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창작태도에 근원적 철학이 뒷받침하고 있는지,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혁명적,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대건축사조 속의 어떤 위치에서 작업하고 있는지를 통 털어 말하고 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건축은 설계금액에 알맞게 적당히 처리하여 그려주는 구조물로 알고 있고 피상적으로 모방하는데 그치고 말든가, 자기상호를 선전하기 위하여 기교한 표현을 무절제하게 꾀하든가 하는 경향이 우리 건축사회의 풍조로 되어가고 있다.”면서 “권익을 위하여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오웅석(74)은 “세상에는 건축사를 건축허가를 대서하는 사람으

미국의 저명한 건축가 야마자키는 현 건축계의 혼란은 철학의 빈곤에서 기인한다고 말 하였다. 여기에서 철학이라 함은 극히 속된 뜻으로 즉 건축의 순수성이나 예술성을 느끼고 있는가, 건축의 기본요소를 이해하고 있는가, 건축의 사회성을 알아 거기에 배타되지 않게 행동을 가하는 정도에서 우리건축계에 해당시킬 수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창작태도에 근원적 철학이 뒷받침하고 있는지,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혁명적,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대건축사조 속의 어떤 위치에서 작업하고 있는지를 통 털어 말하고 있다.

의를 내세우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무질서와 자의와 횡포가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사회는 한국뿐이다. 낙후한 윤리사회일수록 건축주의 횡포가 심하며, 이러한 무정부상태를 묵인하여 일언반구 대꾸도 하지 않는 데는 건축주의 횡포를 다반사로 알고 있는 불우한 세대의 체념도 아니고 절없는 삼척동자의 희롱을 가소롭게 생각하는 탓도 아니다. 좀 더 깊은 철학적 고민에서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

그는 전반적으로 정신적 문제를 다룬 본문에서 건축에 있어서의 윤리적 요구를 담고 있다. 그는 “언제나 위대한 건축시대의 시초에는 건축의 내면에서보다 윤리성에 대한 요구가 더 강조되기 마련이다.”면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도 없이 도과될 요소가 많은 설계를 해 내치운 대학교수의 양심, 기술적 검토를 전문가에게 맡겨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비도 지불하지 않는 기업주의 인식, 이러한 도서를 유아무야 허가하여 준 행정관리의 무능, 또 이 공사를 무허가업자가 도용한 상호로 아무 기술 보장 없이 진행된 업자의 무리한 이익추구 등 일련의 일들을 일소하는 것이 건축계를 정화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건축가 개개인의 건축철학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건축가 야마자키는 현 건축계의 혼란은 철학의 빈곤에서 기인한다고 말 하였다. 여기에서 철학이라 함은 극히 속된 뜻으로 즉 건축의 순수성이나 예술성을 느끼고 있는가,

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건축사 스스로 건축허가 취득을 본분으로 일삼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건축허가사라는 직종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고 한탄했으며,

김지태(86)는 공정거래와 건축인의 자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윤리규약 제9조 ‘입찰은 참여하지 않는다’의 삭제를 요구 받고 이의 부당성을 논하면서, “회원은 윤리규약의 유무와 관계 없이 참여치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이성에 호소하고 있다.

계획설계의 무상 서비스에 대하여

과당경쟁으로 인한 계획설계 무상서비스는 해묵은 과제이다. 이에 대한 3인의 글이다.

김석환(02) : 채석장의 돌은 그냥 돌 일 뿐이지만 작가의 손을 거치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된다. 건축도 그와 마찬가지로 작가에 의해 한낱 건축자재가 생명력을 띠고 태어나는 정신적 산물이다. 그런데 업자들은 여기저기서 가설계를 받아본다고 한다. 계획설계는 눈에 들어나 보이는 성과물은 적어도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다. 시장원리로 보아도 응당 제대로 돈을 받아야한다.

최영집(02) : 이것만은 협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연구해서라도 하나씩 시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가자. * 합당한 계획설계비가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설계경기에 불참한다. 공개경쟁, 지명경쟁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고 계획설계비의 보수기준

을 정하자. 모든 건축사는 계약 전 계획설계 서비스 요구를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한다. 설계도가 아닌 규모검토 및 타당성조사에서도 단계적인 보수기준을 정하며, 계획설계도단계별 보수기준을 시행하자.

조충기(08)는 가설계도면 그려주는 행위를 보고, -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건축사 날인 없는 허가는 없다’는 특권을 주었으면 우리는 국가자격에 대한 모독은 말아야하지 않겠는가? 특권이라면 특권일진대 왜 그리 목말라하면서 오로지 서비스에 서비스를 자청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스스로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존경하겠는가?”

윤리부재의 건축사와 용기 있는 건축사

조인철(00)도 “특별검사원을 하다보면 대충 어떻게 그 상황만 벗어나려는 건축사들이 있다. ‘그 정도의 설계비로 도면을 모두 그릴 수 없고 현장상황과 도면을 맞출 수 없다’ ‘업자가 나에게 설계 일을 가져오는데 냉정하게 감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회원들을 만나면 정말 특별검사원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회의를 표하고 있다.

이광만(03)은 대구지하철 참사를 보면서 “48층에 비상계단이 하나뿐인...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 할 설계자가 건교부 질의회신을 통해 합법적으로 얻어낸 결과이며, 이로서 최대 전용율을 만들어 냈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다. 건축사는 사람들의 삶을 만드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우리 임무를 스스로 저버려 한 순간에 수많은 인명을 해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데, 홍문유(91)는 “첫째,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최저비용으로만 건축하려는 건축주들 때문에 어떤 구상이나 창작물에 대한 이해, 또는 상호협의를 의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서울지역의 실태로는 시공자가 시공비에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하여 수주하기 때문에 시공자에 의해 설계가 의뢰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시공자의 자질문제로, 시공 상 위법이 만연되어 감리 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문제이다 대부분 무자격자가 시공하고 495m² 이상의 건물도 면허를 대여 받아 개인이나 단종업자들이 시공하기 때문이다.”고 실상을 고백하고 있다.

김기환(98)은 “현상설계에서 뇌물을 받은 고위직 공무원은 해임되었다. 그러나 뇌물을 준 건축설계사무소나 회사대표는 금액이 작아서인지 그대로 넘어갔다. 또 당선작도 그대로 인정되어 있는 상태임”을 고발하고, 김영섭(01)은 “심사위원에게 전 방위 로비를 펼치다가 급기야 심사위원이 될만한 교수들에게 모두 무료해외여행을 주선하여 대부분의 관공서 설계경기를 독식해보려는 파렴치한, 건축허가서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다는 이

유로 계획 기본 실시설계에 따른 엔지니어링까지 모두 해외에 발주시킨 건물로 각종 건축상을 염치없이 수상하는 행위. 건축설계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교수들은 설계경기 심사 제의가 들어오면 정중히 사절하라”고 권고한다.

손기찬(01)은 “그 잘난 작품들은 잡지를 쉽게 베끼고, 그도 모자라 가서 베끼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의 문화나 환경에 관심은 없고 오로지 외피만 그것도 일부만 베끼다. 아예 공공기관에서는 외국건축가와 협력 참여해야한다는 전제도 단다. 모범 답안 같은 지침서에 의해 응모된 구민회관들은 지역성은 무시된 채, 디자인 감각을 뽐내는 하나같이 출품한 작품들이다. 어느 것이 당선되더라도(지역주민들이 이용 않는다면) 어느 구에 지어도 손색이 없다. 심사위원들은 바쁜 일정에도 골라잡기 힘든 작품을 용케도 집어낸다”하고

김희곤(02)은 “현대의 자본을 동반한 첨단 감성적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담은 건축을 만들어야한다. 선불리 선진건축가의 디자인 방법을 이용한 모방은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설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데

이현희(02) 교수는 “건축인으로서 자주 듣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건축의 현주소’에 관한 것이다. 예술적 감각과 이해를 갖추지 못한 국민을 안타까워하고, 모든 건축사를 예술가로 대해주지 않는 상황을 슬퍼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인정하고 투자해 주지 못하는 사회상황을 속상해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축이 별 볼 일 없다고 비아냥이라도 할라치면 그 주범이 아니었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내심 자신의 불참을 안타까워한다. 비난 받더라도 차라리 ‘주범’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꼬집고 있다.

공존과 희망

최동규(04)는 “작은 사무실과 큰 사무실이 공존하여 건축문화라는 물을 가득 채울 수는 없을가? 건축계에까지 배어들어온 ‘큰 것이 좋은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들이 건축계 전반을 서서히 고사시켜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씩씩하다”며 공존을 희망했으나, 6년 뒤 “전국에 있는 심사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전천후로 비를 하는 터키 프로젝트부터 BTL까지를 제외하면 소규모 아틀리에 사무소의 영업대상은 정말 한정적이다. 마치 조선시대노비 신분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면천이 안 되듯 죽을 때까지 큰일은 손도 못 대보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지 알 수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조자연 교수는 “외국관련 연구소 기공식에서 건축사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순간 필자는 몹시 서운하고 부끄러웠다. 건물이 다 지어질 3년 후에는 건축사의 지위가 조금은 나아져 준공식에는 건축사가 주인공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표

정을 지으며 작품소개와 그간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즐거운 상상을 한다.

이러한 윤리의 결여와 함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위상이 추락하는 현실과 치유방법에 대하여 최창규(71)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허가도서를 심사하는 사람이 설계자보다 높거나 적어도 같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경쟁입찰이란 수요자가 일정한 품질 규격 양식 모양을 제시하였을 때 동일한 규격으로 납품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건축사의 개성과 사상이 농후한 창작물에 경쟁입찰이 타당한가? 현실상의 문제점으로 창작물에 어떻게 덤핑이 있을 수 있으며, 명의대여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이 있는가?” 라고 묻은 후, “정신적인 문제점으로 건축학은 이미 공학이나 예술의 경지를 넘어 철학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는가?”라고 자문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자신에게 비판의 채찍을 들고 심판대 위에서 냉정하게 주시해야 할 것이다.”라는 자답을 하고 있다.

35년 전의 교훈

정인국(75) 건축가협회 회장은 “건축사의 사회적 직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첫 번째 단계를 사회적 직분이 미분명하고 서로의 유대관계도 없는 건축사법 공포 이전의 단계, 둘째단계는 법적으로 그 사회적 직분을 보장 받으며 공동이익을 위한 직업단체가 조직되고 건축주와 평등한 관계에서 쌍방 합의계약을 체결되는 법적 사회적 직분확립기로서 현재의 한국건축계가 이에 속하며 세 번째 단계는 그 사회에서 직업의 안이성과 신뢰와 존경을 받을 때 참된 사회적 직분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자연적 사회적 직분확립기라고 할 수 있다. 건축사계가 3단계로 가는 데는 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이는 한국건축계에서 필연적으로 변화할 상황에 대하여 건축사들이 능히 자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이다. 따라서 장래한국 건축계를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다. 세계건축 조류와 견주어서 몇 개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건축사의 수적 증대와 건축업무량간의 불균형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이나 조만간 업무량은 건축사의 수적 증가를 따르지 못한다 이 경우 자연도태현상은 더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다. 건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차원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현 건축사의 사고체계는 2~3년 내 끝난다. 세계건축 조류는 광포한 세력으로 밀어닥칠 것이고 S·F구조, Pre-Feb 구조, 컴퓨터디자인 등은 우리들이 정신 차려 받아들여야 하고, 자신의 창작활동의 기반을 정지하는 일부러 시작하여 새로운 세대에 대처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개성을 감안하여 건축철학을 수립하는데 온 힘을 경주하여야 한다.

고객 건축주의 안목은 점점 향상하여 건축사들이 비판받는 정도는 더욱 가혹해진다. 그들의 현실적 요구는 몇 년 안가서 사회

적 변화와 생활상의 변모에 따라 쉽게 불만스러워진다. 따라서 건축가는 봉사자인 동시에 지도자라는 W. Gropius의 교훈을 기억하고 한걸음 더 나가 기능의 창조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건축 활동과 관련된 행정적 규제는 점점 강화된다. 따라서 건축사들의 설계능력이나 기술역량은 일층 광범위한 종합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많은 규제법과 도시계획에 대한 고려는 과거의 좁은 울타리 속에 건축사를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다.

이제 이러한 3단계는 위에 열거한 모든 내용이 건축사들의 힘에 의해 해결될 때 도달한다. 질에 의한 도태가 이뤄지고 건축 조류에 대응하여 지식과 능력한계가 넓혀지고, 고객과 사회의 비평에 능히 견디어 내며 인간생활의 창조자로서 역할을 다 할 때 인위적인 속박의 방법이 아닌 자연스럽게 건축사의 사회적 직분은 확립된다. 사회의 존경과 신뢰는 저절로 건축사에게 주어지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최상의 대가는 자진해서 받쳐진다. 그리고 우리 도시는 아름다워지고 건물들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진선미를 다한 최상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때, 건축사는 이 낙원에서 자기 직업의 만족스러움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은 험하고 멀지 모르나 연젠가는 올 것을 믿고 매진하는 것이 장래 건축사의 목표일 것이다”라면서 건축사 미래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성의 바탕 위에 스스로 노력해야

유광택(84)은 “건축사의 권익과 지위는 스스로의 자각과 협력에 의한 것이니 누가 만들어주는 것 아니다. 자기향상을 위한 노력과 새로운 기술 체득으로 세련된 전문적 기량을 소유하는 것은 회원의 의무라”하며 장양순(04)은 “지금은 온라인 시대다. 한 주일에 한 시간만 협회를 위하여 현안과 시정점을 생각하고 밝혀준다면 우리협회의 기반은 공공해지고 권익은 신장될 것이다. 협회는 이를 한곳에 모아, 합의된 것은 일치단결하여 밀고나가야 한다. 설문조사에 응한 회원이 2~3% 수준. 올해부터는 봉사차원에서라도 인터넷에 참여하여 명실공이 내가 주인인 협회를 만들어보자”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주기를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글에서도(06)도 “대상 심사 출품작의 어떤 건물은 한실 창문이 창호지가 밖에 있는 일본식 문이었고, 신도가 130여명, 그중 남신도가 30여명인 아름다운 교회의 화장실 변기는 남자 4개에 여자는 2개였다. 그러나 건축사들은 변명뿐이었다. 정부시책도 한심하지만 모르는 것, 부족한 것을 배워 익히는 준엄한 자기 성찰이 더욱 필요하다”며 전문지식의 충전을 요구하고 있다.

또 김성우(98)는 “나를 배고프게 한 원인을 찾고 그 뿌리를 캐낼 때 까지 철저하지 못하면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 원인

을 가까운데서만 찾으면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치유는 되지 않는다. 나를 배고프게 한 원인의 극복은 나 자신을 고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자성을 요구하고

김낙중 교수는 “미학적 배려에 의한 조형성은 찾기 어렵고, 법규와 대지형태에 다른 용적을 극대화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분절만 있을 뿐이다. 과연 이들은 이 땅, 이도시가 주는 message를 투영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이 이 시대 상황의 어쩔 수 없는 반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건축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을 회복하면서 이 시대 고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건축사를 질타하고 있다.

사고의 전환과 봉사

송민구는 “내일을 전망하느니보다 내일의 방향을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하다면서 우리들이 사상적 공백, 사상적 위기, 사상적 재건을 말하기 이전에 산사의 빈곤을 느끼게 되고 내일의방향의 정립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 인간성의 회복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인간에게 건축가로서 무엇을 봉사하였는가, 또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오늘도 내일도 사색하며 성찰하여야 한다” 하고, 안병익은 “군자불기(君子不器)를 인용 건축사불기를 요구한다. 전문가에만 그치지 않고 교양과 덕을 갖춰 남에게 봉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김승제(03)교수는 “이제 우리들도 해방이후 근대건축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충분한 경험과 성과물을 가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선진국의 건축이념을 답습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야한다. 우리의 건축을 우리의 힘으로 짚어지고 가는 늠름한 모습을 기대하고”있다.

홍기택(95)은 사고의 전환에서 “Archi-Director는 자기중심적이 아닌 문제 중심 사고로 접근해야하고, 다수의 요구가 아닌 거주후평가(P.O.E)에서 올바른 Model Personality를 구해야 한다. 아키 디렉터로서 역할과 변화와 그 개념의 확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서는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건축문화의 선진화도 기대할 수 없다. 상황이 급변하면 사고의 전환도 혁명적이어야 한다”하고, 장석웅(95)은 “**건축인이 변하지 않는 한 건축계는 변하는 것이 없다.** 대부분의 부실이나 사고의 근본원인은 관련종사자 개개인의 자질부족과 무사안일주의에서 온다”고 파악하고 있다.

박서홍(96)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고 건축물을 생산해 내는 주체들의 의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더욱 시급한 것은 이 땅의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철저한 전문가 의식의 재정립이다. 그것은 지적 허위의식도 오만한 엘리트의식이 아닌 평범한 직업의식이며 건전한 시민의식이다. 삼풍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같은 의식의 재정립부터 점검하고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밖에도 서보광(02)은 “**도를 넘는 주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인인 건축가들의 선비정신이 아닐까. 적어도 그런 노력을 다음세대의 건축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최종철(03) 교수는 “앙드레 김의 의상이기 때문에 비싼 것처럼 건축사 개개인의 고유한 디자인에 의해 가치가 매겨져야한다. 그것은 유명세에 의해 가치가 매겨지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종호는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건축사’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자”고 제언하고 있다.

건축사의 사명

하영호(05) 목사는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는 아무리 신분이 높은 자라도** 얼굴을 찡그리고 건축사를 찾아온 손님은 그 누가 되었던 꿈에 부풀어 온다고. 그 꿈을 먼 미래까지 이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남들이 이렇게 하니깐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것은 아니다. 그러다 일거리 떨어져 밥 굶을까 걱정이지만, 그래도 혼자만이라도-남은 알아주지 않아도-예술가의 긍지를 지니며, 삭막한 도시에 혼을 불어넣어주면 어떨까?” 라며 지조 있게 살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필훈(96)은 “**왜 건축을 하느냐고 물으면** 돈키호테 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고고하게 산위에서 얼어 죽으려고 건축을 한다. 그렇게 얼어 죽으려고 계속 미끄러지기를 한다.”고 처연하게 현실을 표현한다.

민현식(00)은 “**우리의 건축이 별 볼일 없는 버나쿨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고질병은 우리건축에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점이고 그걸 위한 창조적 노력이 바보짓 같이 취급되는 풍토이다. 본래 윤리란 것이 중산층에만 있는 것이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20대 80의 사회로 재편되어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으니 도덕 불감증마저 사라져 애써 지키기로 제정한 건축사 현장은 그저 박물관에 보관된 지난날의 유물이 될 것”이라며 안타까워 한다. 그는 다른 글에서 “**랭보가 베를렌스에게 던진 질문처럼 또 다른 세기말에** 우리의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보다 우리는 ‘왜 건축을 하는가’를 진지하게 다시 물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지고,

심영섭(01)은 “**건축가의 역할은 새로운 것을 위해** 기존의 질서를 어떠한 형태로든 재편해야하는 운명을 타고 났지만 그의 역할과 책임이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하는 개발업자의 그것과 다른 것은 ‘어떻게?’라는 건축가로서의 고유한 해결방식에 달려 있다. 이 어떻게? 라는 고민이 결여될 경우 건축가는 개발업자

와 결코 다를 게 없으며 오히려 창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상황을 방치하느니만 못하는 적극적 파괴자로서 남게 된다”고 경고한다.

박길룡(97) 교수는 “정치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는 경우 해달라는 대로 따라하지 말자. 왜냐하면 공공건축은 국민이 만들어서 공복에게 임기동안 쓰라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비록 작은 청사일지 모르지만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문화로부터 일탈로 보이는 현상은 고무적인 일이다. 건축이 정치를 순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공공건축은 국가문화보다 앞선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고 영합을 경계한다.

외국건축사의 도입

방철린(98)은 “외국여행을 통해서 견문(?)이 넓어진 건축주의 욕심에서도 그렇거니와 외국의 건축사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건축계가 더욱 큰 문제이다. 크다는 설계경기는 외국건축가들까지 참가하다보니 이에 뒤질세라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의 흉내를 낸다” 현실을 비판하고, 동정근(97) 교수는 “부실설계는 국내 건축가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외국 건축가를 불러 들였고, 부실공사는 외국 감리단을 불러드렸다. 사치풍조는 사치성 수입자재를 끌어들었다. 스스로 우리가 불러들인 결과다. 그간 우리나라는 내실보다는 외형, 안정보다는 팽창, 효율성보다는 지표 우위의 경제 원리를 고수하여 왔다”며 건축사를 질타한다.

관에서 보는 건축사 위치

장양순(99)은 아산시의 리인철 건축사의 예를 들어 “법 규정에만 맞으면 건축할 수 있게 미관심도 없애는 마당에 규정에 맞게 신청한 노인 휴양시설이 ‘콘도’로 변신할까봐 허가를 불허한다면 재량권 남용이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법을 바꾸는가 추후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호구지책일지라도 일부는 ‘법은 맞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경우를 만들기도 해왔기 때문”이라며 관을 성토했고 자성을 요구하고, 리인철은 “필자가 아산시청의 건축 인 허가 부정 부패에 대하여 언론에 공개한 것은 나를 희생시키려는 이타심이지만 그 희생은 결국 우리 건축계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음으로써 건축사의 건축 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건축문화를 제고하는 공화심(共和心)에 기인한 것이므로 우리 건축사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박순종은 “8년이 지난 다세대주택의 감리자로서 이격거리가 틀린다며 구청장으로부터 현황측량을 해 갖고 청문에 나오라는 공문이 왔다. 살인용의자도 용의자 비용으로 수사하지는 않는다.

건축사는 공소시효도 없는 동네북인가”라며 성토했다.

다른 글에서 장양순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허위보고 시 공무원 의제로 7년 이하 징역형이다.수소조원의 국민혈세를 부여넣은 대우그룹의 회계감사를 맡은 법인도 회사인가 취소 외에 공인회계사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들은 바 없다. 건축사의 100m² 주택 현장조사보고서 수수료가 7천원인데 부동산중개사의 수수료는 300만원”이라며 정부의 건축사 확대정책을 성토했다. 민규암(02)은 민원 때문이라며 초기의 설계안을 임의로 변경시킨 것에 제소하였다. “싸움은 2년 여 만에 대의명분상 압승했지만 실리적으로 큰 소득은 없는 것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필자가 제기한 사건과 같은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저 그렇게 체념하면서 우리의 지위와 역할 정립을 소홀히 한다면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먼 훗날을 위해 당장에는 질 것이 명백해 보이더라도 대의명분을 세우고 출사표를 던질 때가 되었다”고 역설한다.

긍정적 평가

장석웅은 “1999년은 우리들이 선포한 건축문화의 해로서, 건축3단체는 협력과 화합 하에 국제대회 및 국내행사를 통하여 건축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나름대로 건축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했고, 오원근(98)은 “상암월드컵 시공자 선정에서 빅5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설계의 우수성이었고, 이것을 사무실이 작다고 확대받던 건축사가 해냈다는 것이다. 사실 창작이란 수많은 인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우수한 천재가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재인(06)은 “설계해서 밥 먹고 살려는지? 밥 먹고 살기 위해 설계를 하는지? 큰집은 더 잘되고 작은집은 더 나빠지는 이유는? 발주처 어르신네들, 간단한 스케치와 기본도면 10장 정도로 현상설계를 한다면 어떨까요? 건축사를 깔보는 세상 우리가 뒤집어야 안 되겠나? 열 받는다고 진짜 열 받으면 우리 밥그릇은 어디서 찾나”고 묻는다. 이 밖에도 수많은 근거를 밝히면서 건축사만이 Architect여야 한다는 강명구(75)회장의 “건축사, 건축가와 Architect”란 글은 국제적인 명칭으로서 한국 건축사의 정체성을 논하고 있다.

| 협회의 윤리와 정체성

대한건축사협회의 윤리에 관한 것은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회원의 요구에서 정체성을 논할 수 있는데, 의외로 3단체의 통합에 대한 글들이 20년 전 부터 대두되고, 공제조합 등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제안들이 일찍부터 있었음이 주목된다. 또한 협회활동에서 노장(老壯)의 조화로운

구성과 참여, 협회와 회원 간의 소통과 대의를 위한 행동 등은 지금도 장래에도 필요한 요소들이다.

총회꾼들과 임원의 부정

1970년 강명구 건축사협회장은 협회의 체질개선을 요구하며 임원임기에 대하여 부실한 2년보다 1년 단임제로 정관개정 요구하고 있다. 그는 “총회에서 말이 되든 안 되든 떠드는 총회꾼들이 설계의 경력과 관계없이 임원에 선임되고, 임원이 되면 협회를 발전시킨다는 미명 아래 사리사욕을 챙기고, 지부의 부당 운영을 묵인하고 차기를 위해 회원을 포섭하며, 공금을 중간 유용하고 본부의 공문을 찢어버리는 지부 임원을 성도하며 회원들도 실적회비를 도서등록비라고 하며, 부실설계를 뇌물로 칭칭 감아 넘겨 사회를 흐리게 하고 명의를 대여하는 등 이대로는 굴러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건축가협회는 도서등록에 대한 법조문이 협회의 체질개선을 조건으로 동의한다는 글이 건설통신에 게재되고, 건축학회에서는 이로 정연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라면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모든 역원, 지부장, 이사, 회장직은 1년제 단임으로의 정관 개정안을 제안 한다”면서, 부실한 2년보다 알찬 1년을 원하고 있다. 이는 협회 창립 5년만의 일로서 협회의 난맥상이 충격을 주고 있다.

협회창립 10주년, 양단체장의 제언

그로부터 5년 뒤인 75년 정인국 가협회장은 “건축사협회의 업적을 돌이켜보면 첫째, 조직을 정연한 체계로 수립하였고 둘째로는 대사회적인 활동에서 건축사의 업무내용과 목적을 선명히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고, 셋째로는 회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성을 촉구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여온 점들이며, 대체로 이러한 업적들은 초창기에 성숙하여 다음 단계로 진전하기 위한 초보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체가 해야 할 일은 사회적으로 건축가들의 책무를 명백히 하여 그 권익을 옹호하는 일이며, 대내적으로는 조직을 정비하고 나서는 건축 창조 본연의 활동을 얼마만한 높은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게끔 협회자체의 총체적인 질을 향상시키느냐라는 것이고, 끝으로는 국가가 요구하는 일에 얼마큼 보답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협회가 법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지만 법이 바로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법을 넘어선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의 형식적인 면을 초월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법의 목적 사항에 충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제1조에서는 엄연히 후반에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의 제언도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즐겨 건축은 예술의 범주 안에 들며, 건축사의 활동은 단지 기술활동이 아니라 예술활동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기술자격 정비를 둘러싼 정부시책에 대하여 건축사협회가 들고 나선 유일한 무기는 이 전가의 보도였다. 내가 보기에는 건축사법 어느 한 구석에도 이를 위한 활동을 촉진시킬 근거조항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은 마땅히 법정신에 근거하여 건축사협회가 자기의 생명력을 왕성히 하기 위하여 벌여야 하는 근본사업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1. 도서등록을 형식적인 면에서 구비서류 정도로 취급하는 풍토를 지양하여 질적 검토를 하는 방안을 세워야하고
2. 건축사는 개개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적활동을 활발히 진행시켜야 하며,
3. 이 때 까지 도외시 해 온 학교 연구기관, 자매단체와의 교류를 긴밀히 하여 상호협력의 기풍을 조성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제언하고 싶은 것은 무정형 무방향의 한국건축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계는 혼미한 상태로 잡다한 양식과 스타일, 앞선 기교와 뒤 떨어진 기술의 갈등, 거센 외국 풍조와 전통과의 상극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바, 그간 수 만 건의 건축허가건수는 모두 협회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선진 국가와 같이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가 경제적인 뒷받침을 얻어 보장되어 있다면 구태여 건축사협회에 이런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이 건축가들의 자유스런 그룹 활동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후진국다운 법운영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는 사협회가 유일한 활동근거지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라며, 협회의 정체성과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였다.

김희춘 학회장은 “건축사의 자세는 우선 기존 가치관에서 탈피된 새로운 자아의 형성을 꾀하는 것이다. 현재 건축사의 영역은 점차로 도시적 스케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과 변화의 부정적인 수많은 요인을 내포한 도시화 과정이 원활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도시구조를 재조사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1. 모든 건축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건축인들 스스로의 역량과 지혜를 각 부분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건축사를 위한 교양과 지도계획이 확립되어야 한다.
3. 건축분야의 연구와 병행하여 관련분야 학문에 대한 폭넓은 연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집행부와 리더의 자세

박서홍(95)은 새 집행부 출범에 즈음하여 “집행부 구성이 논공행상을 벗어날 수 있는가? 회장의 편향적 독선적 파행을 할 경우 면죄부를 받을 자신이 있나? 경륜의 원로와 패기의 젊음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은 불가능한가? 정부의 관료주의 권위의식 기술 우선적 시각이 교정될 수 없다면 밀월은 끝난 것 아닌가? 전쟁을 결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를 묻고 있다. 장양순(07)은 돼지해에 붙여 “흔히 상대방을 모욕할 때 쓰는 말이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러나 돼지는 해부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파고들수록 더러움만 커지게 마련이다.

새 회장은 1만여 회원은 물론 비회원 건축사까지 돌보고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와 덕을 겸비해야 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동지시”를 배격하고 “신급돈어”와 같은 신의와, 돼지같이 온몸을 회원에게 주는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전 글(06)에서 그는 “그간 건축사들은 재해가옥의 안전진단 건축설계 등 전문성으로 자원봉사를 해왔다. 이에 비해 홍보는 부족했다. 이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지역마다 펼치고 조직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건설업체의 설계 겸업이란 공룡과 싸우고 있다. 이를 이기려면 정연한 논리만으론 안 된다. 국민들이 건축사의 편이 돼 주어야 한다. 봉사를 통한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제 집행부에 대하여

오선교(04)는 “우리협회도 크고 작은 독불장군들의 모임체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가끔 있다. 자기의 주장만 옳고 제각기 1등이며 결코 2등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다. 잘잘못을 따지기만 한다고 협회가 바보가 되는 않는다” 하고, 주수일은 “회장의 가장 큰 책무는 주주와 같은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건축사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회장은 CEO로서 협회운영이 아닌 경영에 임할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제 독불장군 식 경영은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 고 단언한다. 이종호(04)는 “의장석에 올라선 이세훈 회장이 법률자문변호사 2인을 회의장에 참석시킬 것을 제의하면서 다수 대의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나중에 부의안건 순서부터 완전히 뒤바뀌어 했다. ‘회장신임여부에 관한 건’을 상정하면서도 의장 역할을 고수하려는 회장과 임시의장을 내세우려는 대의원간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대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이세훈 회장은 임기5개월을 남겨놓고 퇴진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불문율인 시도회장의 이사겸직 등 독단적 행태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다.

노장(老壯)이 함께하라

윤시덕(05)은 “목은 김치가 패스트푸드에 길 든 신세대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도 맛있게 먹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회원의 30%가 장·노년층이다. 이들이 진부하다 탓할 수는 있으나 상생해야 한다. 그러면 희망은 있다”고 하며, 조원용(08)은 “삶에서도 파종과 수확의 적절한 시기가 있다. 파종 때는 약간의 유연성이 있지만 수확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시기를 알고 놓치지 않는 것은 큰 지혜임에 틀림이 없다. ‘인생의 연륜이 풍부하신 어르신들이 지혜로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구나’ 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게 된다”며 협회의 구성에 노장이 함께하기를 권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설립하라

김중배(81)는 “협회는 면허대여, 이중직개설자 등 문제건축사에 대하여 점진적 개선이 아닌 과당성 있는 정화의 필요성 강조”하고 송수구(92)는 “타지역의 도서등록 시 일부이지만 배타적 현상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에 바라는 것은 이렇게 개체적인 것 외에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즉 강기세는 1994에 공제조합설립하자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사무실 운영, 설계 감리의 질 향상, 건축사의 활동입장과 노후대책까지 효과, 늦출 수 없는 과제로서 복지회나 연금과는 달리 법률로써 보장받는 장점이 있다”면서 “기한부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도 출범하는 공제조합을 보면서 그 해안을 거부한 과거가 안타깝다.

그런가하면 문홍길(04)은 “감리협회는 CM영역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우리협회는 감리관련 실무활동의 핵심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불협화음 때문에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 합리성의 바탕위에 선다는 것은 여태 우리가 잊고 지낸 가장원초적인 원리인 것이다. 내부문제로만 아웅다웅하면서 남 탓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20년 전의 단체통합 주장

김무언은 1990년에 ‘건축 3단체의 통합을 바라며’란 글에서 “3단체의 통합이 쉽지는 않으나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머물러 있던 껍질 속에서 뛰쳐나가는 용기와 아픔을 각오하여야 한다. 우리들만의 단합과 노력의 결정체인 협회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한창진(97)도 “적어도 건축 3단체만이라도 수평으로 결속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 건축인들을 누가 깔보고 불신할 수 있었겠나. 개혁에는 부정적개혁(negative system)과 적극적 개혁(positive system)이 있다. 규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규제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어떻

까” 제안하고 있다.

이경일(10) 건축문화편집장은 “건축사는 사회의 지도자이며 역사의 창조자이다.” 고 김종업선생의 말이다. 외국의 경우 큰 역할을 하는 건축단체는 대개 하나이고, 이 단체가 국내적으로 법령의 개정이나 입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단체가 하나일 경우, 대외적으로도 한국건축계의 위상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없을 것이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는가? 얼마 전에 부결된 어느 제안이 생각나진 않는가?

이상림 건축가협회장은 사협회의 통합정관 부결 사유 중 하나는 “가협회 회원이 사협회 회원의 자격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 한데 있다고 본다. 국가가 인정한 자격은 존중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불신과는 작별해야 한다. 상대가 무엇을 갖지 않았느냐를 문제 삼기보다 오히려 그는 내가 갖지 않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써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집단이 될 것이다”라면서 가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건미준과 새건축사협회

박태웅(94)은 건미준에 관여한 회원들에게 “건미준의 제안이 협회의 협의를 거쳐야 정도가 아닌가? 실천 가능한 현실론인가? 일제로 급년에 3배 이상 합격한 건축사의 배출이 환영만 할 일인가, 질적 저하에 대한 대처는 어찌할 것인가”를 묻고 있으며, 동정근(01)은 “건축계에서도 3단체 간 혹은 주변 집단 간 보이지 않는 답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가진 자의 간교함과 목소리 큰 사람의 영웅적인 외침에 의하여 닫힌 사회로 가면서 스스로의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새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권도웅(02)은 “건축계를 대표하는 3개의 단체에 모두 가입하여 어정쩡하게 보냈는데, 또 하나의 단체가 탄생된다니 한 몸을 4개의 단체에 나누어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알맹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껍데기인 조직은 왜 이렇게 늘어나야 하는 것인지?”라며 회의를 표하고 김무권(03)도 “이 어려운 시기에 새건축사협회가 만들어져, 하나 되어야 할 우리가 둘로 갈라진 상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새건축사협회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뜻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기존 대한건축사협회가 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사협회도 차체에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원과 협회

장양순(06)은 “서울회장은 노조사태로 사퇴하고 새 회장을 선임하는 임시총회는 가까스로 성원되었으나, 회장선임 전 정

족수 확인요청 발언으로 회장선출이 무산되었다. 그 회원도 이 총회가 얼마나 어렵게 성사되었는지 잘 알 것이다. 모든 일은 규정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여도 그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면 이는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규정은 그들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글(09)에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삼가야 한다. 그러나 어려워도 핏박을 받아도 의로운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은 공익을 위한 정의이며 종국적으로 거론된 당사자도 살리는 활인(活人)의 행위이기 때문이다”라면서, 협회에 대한 회원의 공선사후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김광현(05)교수도 “건축계의 모순은 일차적으로 내부에 있다. 건설과 설계, 대형과 소형사무소는 같은 선상에 있지 않으며, 감리와 설계 시장의 결합여부도 이견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모순은 내 속에 가득 발견된다. 그래서 성서는 말한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마 10:36)’라면서 건축사의 이기주의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장양순(07)은 “과천 벌 옥외집회를 위해 홍보분과위는 기획사가 TV 2사와 메이저신문 2사에 책임지기로 하여 각종 문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3일을 앞두고 불가 통보를 해왔다. 그러나 필자는 홍보담당이사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하며 시위에 참가한 회원들께 사과한다. 경과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이렇게 처참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함이다. 감성보다 이성, 형식보다 실리가 중요한 때이다.”라고 고충을 고백하고, 백민석은 “협회는 회원들의 알 권리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회원의 의견들을 수렴,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회원은 습득된 정보를 이용 사회적 규범과 상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 스스로 노력하는 협회의 서포터가 되어야 한다.”며 양자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맺는 글

「건축사」지에 나타난 대한건축사협회의 45년을 정리하며, “역사는 반복 된다”는 말을 또 한 번 실감한다. 해안으로 미래를 내다 본 35년 전의 글도, 건축사의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그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도 모두 놓쳐버린 현실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모아놓은 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행합일(知行合一)!

알고서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

건축사협회를 이끄는 회장과 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런 뜻이 있는 회원은 물론, 협회의 구성인자인 회원 각자도 이 글을 읽음으로서 새롭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일의 협회와 자신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를 소원한다. ■